미국 국립보건원(NIH) 연구책임자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의 주요 내용

□ 국립보건원(NIH)은 연구비 배분 형평성을 높이고자 연구책임자(PI)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방안에 대한 약 3,300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공개(2026.8)

□ 응답자들은 과제 수 일률 제한이 팀 연구 위축, PI 변경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, 총연구비 상한 설정이나 공동연구 과제 인정 등 대안을 제시

□ 우리나라도 과제 관리 업무량, 연구비 집중도, R&D 매니지먼트 지원 수준을 종합 반영하여 제도 보완을 제안

주요 출처:
https://grants.nih.gov/news-events/nih-extramural-nexus-news/2026/08/what-we-heard-from-you-regarding-the-proposed-cap-on-simultaneous-nih-research-project-grant-support-and-our-next-steps

1. 추진 배경 및 환경 변화

가. 연구 생산성 정체의 구조적 한계

○ 미 연방정부는 NIH 예산 등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신약 승인율 및 논문·특허의 질적 혁신성이 정체

○ 연구자가 행정 업무에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모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주원인임을 진단

나. 민간 R&D 자본의 역전 및 역할 재정립

○ 미국 기업의 연간 R&D 투자가 정부 및 대학 합산 투자의 3배를 상회

○ 연방정부 R&D는 민간이 주도하기 어려운 기초·원천기술 및 AI 기반 공공 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역할을 전면 재정립

다. 연구보안과 국가안보의 통합

○ 기술 유출 방지, 공급망 안정성 확보, 국가전략기술 보호가 R&D 관리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, R&D 매니지먼트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국가 안보전략과 긴밀히 통합 운영되고 있음.

2. 백악관 OSTP 전략 및 OMB 연구비 지원 규정(UGR) 개정 연계 분석

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(OSTP)과 관리예산국(OMB)은 연방 R&D 포트폴리오 전체를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규제 개혁안을 동시에 가동 중

가. 백악관 OSTP 전략: 『Science: A New Golden Age』 및 『제네시스 미션』

○ (개별 연구자 중심 지원 전환) 소속 대학이나 학과의 이름이 아닌 뛰어난 '연구자 개인'에게 장기(5년 이상) 연구비를 보장하며, 대학의 과도한 간접비 부과 상한(50~60%)을 엄격히 통제

○ (심사 메커니즘의 다변화): 만장일치식 동료평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독 추천권인 'Golden Ticket', 48시간 내 지원 결정을 내리는 'Fast Grant', 성과 보상형 상금 챌린지, 민간·전문가 집단에 위임하는 재교부 모델을 적극 도입

○ (신규 수행기관 모델 신설): 석박사 과정 중심 대학 연구실의 한계와 기업의 단기 이익 추구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, 풀타임 연구원과 기술자로 구성되어 마일스톤 달성 시 해산하는 시한부 비영리 연구 조직(FRO) 및 NSF X-Labs를 신설

○ (제네시스 미션) 가동: 국립연구소 슈퍼컴퓨터와 데이터를 통합한 'American Science and Security Platform'을 통해 10년 내 과학 생산성을 2배로 도약시키는 AI 이니셔티브를 추진

나. OMB 연구비 지원 규정(UGR) 개정 및 위험관리 기반 전주기 관리

○ OMB는 기존의 행정지침(Uniform Guidance)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(Uniform Grants Regulation)으로 격상하여 모든 연방기관에 공통 적용 추진

구분	기존 관리 체계 (Uniform Guidance)	개정 관리 체계 (OMB UGR)
제도 성격 및 구속력	행정지침 성격, 부처별 세부 적용 방식 상이	법적 규정 체계로 일원화 및 규정 구속력 강화
관리 방식 및 범위	사후 점검(Post-Award Audit) 및 정산·집행 중심	기획-선정-집행-종료 전주기 위험관리(Risk-based) 체계
연구비 지급 및 평가	지급 후 사후 검증, 단년도 중심, 합의형 동료심사	지급 전 위험평가, 다년도 과제, Golden Ticket, Fast Grant
위탁/공동기관 (Subaward) 관리	개별 기관 자율 및 제한적 모니터링	주관기관(Prime Recipient)의 위험평가·모니터링 의무화
연구윤리 및 보안	별도 운영, 제한적 공개	연구관리와 통합, 공개 및 보고 의무 전면 확대

작성/문의: (사)한국R&D매니지먼트협회 이사,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 김정석(042-860-4700, jskim@kribb.re.kr)

3. NIH 연구책임자(PI)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의견수렴 결과(2026.8, 3,000여 건)

가. 응답자 주요 입장별 분포

○ (반대 입장, 약 40%): 과제 수만으로 연구 규모나 연구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없으며, 생산성 높은 연구실의 활동 위축 및 대형·도전적 연구를 저해

○ (조건부 찬성 입장, 32%): 연구비 광범위 분배 목표에는 공감하나, 다중연구책임자[1](Multiple PD/PI) 과제의 부분 인정, 소형 기초연구 예외, 총연구비 상한제 전환 등의 보완을 요구

○ (찬성 입장, 27%): 편중된 연구비 구조를 완화하고 신진·초기 경력 연구자에게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(대다수가 2~3개 수준의 강한 제한을 선호)

나. 공통적으로 제기된 잠재적 부작용

○ (팀 과학 위축) 대형 융합연구 및 다기관 공동연구 참여 기피 현상 발생

○ (규제 회피) 실질적 통제권은 유지한 채 명목상 PI만 변경하는 편법 성행 우려

○ (대형 과제로의 쏠림) 과제 수 제한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예산 규모를 무리하게 키워 신청함으로써 오히려 연구비 편중이 심화될 위험 존재

4. 국내 R&D 생태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

가. '업무량 기반' 관리 체계 도입

○ 과제 수라는 지표는 연구의 기술적 복잡성, 참여 인력 규모, 법정 규제(생명윤리·연구보안 등) 준수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

○ 특히, Post-PBS 시대에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과제 수 제한보다는 총 연구비 규모와 관리 복잡성을 종합한 업무량 기반 관리 모델로 전환 필요

나. 연구비 배분 '형평성'과 연구 '우수성'의 투트랙 분리 관리

○ 연구비를 폭넓게 배분하는 정책 목표와 과학적 수월성 목표를 단일 정책으로 동시에 추진하려 하면 대형·도전적 연구 기반이 훼손될 우려

○ 형평성 제고는 연구비 집중도 모니터링으로 다루고, 우수성 확보는 엄정한 동료평가와 다변화된 심사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관리할 필요

---

1) 대규모 융합연구 및 팀 과학(Team Science)을 활성화하기 위해, 하나의 연구과제에 두 명 이상의 연구책임자가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공동으로 과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

작성/문의: (사)한국R&D매니지먼트협회 이사,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 김정석(042-860-4700, jskim@kribb.re.kr)

다. R&D 매니지먼트 전문 인력의 전략적 연계 배치

○ 연구책임자의 과제 관리 부담은 과제 갯수 그 자체보다 연구지원 시스템의 수준에 따라 좌우

○ 기관 차원에서 과제의 복잡성과 행정 업무량에 비례하여 연구행정 전담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, 연구자가 연구 본연의 업무와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

라. 전주기 리스크 관리 및 연구보안 체계 고도화

○ OMB UGR 개정 사례와 같이, 과제 선정 이전 단계의 사전 위험평가(Pre-Award Risk Assessment)와 위탁/공동기관 모니터링을 강화

○ 국가전략기술 보호와 글로벌 R&D 협력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, 연구보안 및 이해충돌 보고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 제안

작성/문의: (사)한국R&D매니지먼트협회 이사,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 김정석(042-860-4700, jskim@kribb.re.kr)